

[보잉] 에티오피아항공 화물기 최대 10 대 발주 임박 - 777X 화물형 수요, 지연 리스크 속에도 확인



26.09.02 · AI Engineer 조재운 jaeun.jo@daishin.com

핵심 요약

- 에티오피아항공, 보잉 화물기 최대 10 대 발주 협상 중
- 777-8F 지연으로 현행 777F 2 대가 공백 메울 전망
- 최종 미확정, 재무 영향은 현재로선 제한적

에티오피아항공이 장거리 화물기 최대 10 대를 보잉에 발주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로이터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걸프 항공사에 맞설 아프리카 신규 허브 구상의 일환으로, 구성은 현재 생산 중인 777F 2 대와 개발이 지연된 신형 777-8F 로 나머지를 채우는 그림이 유력하다는 전언이다. 다만 보잉은 논평을 거부했고 에티오피아항공도 즉답을 피해, 아직 최종 서명 전 단계이자 대수·구성이 막판 조정될 수 있는 사안임을 짚어줄 필요가 있다.

이 물량이 실제 성사되면 사상 최대치인 수주잔고 715 조 규모, 상업항공기 6,200 대 이상이라는 기존 파이프라인에 신규로 얹히는 화물기 수요다. 다만 8~10 대는 최근 분기 171 대 인도 실적이나 전체 잔고 규모에 비하면 재무적으로는 미미한 수준이라, 이번 소식 자체가 실적 추정치를 바꿀 이벤트는 아니다. 오히려 눈여겨볼 대목은 777-8F 가 개발 지연 상태이고 그 공백을 현재형 777F 로 메운다는 구도다. 이는 우리가 계속 지적해온 대형기 프로그램의 반복적 일정 지연 패턴과 같은 결이며, 777X 패밀리 전체의 인증·인도 리스크가 화물형에서도 재확인된 셈이다.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본다. 확정 계약이 아닌 소식통발 보도인 데다 규모 자체가 작아 즉각적인 밸류에이션 변화 요인은 아니다. 다만 신흥시장 항공사의 대형 화물기 투자 재개는 여객기 수요와 별개로 화물 부문 수주가 살아있다는 참고 신호로 볼 수 있다.

앞으로는 실제 발주 확정 여부와 계약서상 777-8F 포함 여부·인도 시점, 그리고 이 지연이 777X 프로그램 전반의 일정에 추가 부담을 주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재무 요약 (I/B/E/S 컨센서스)

항목	FY Dec-24	FY Dec-25	FY Dec-26 (E)	FY Dec-27 (E)	FY Dec-28 (E)
매출 (Revenue)	66.52	89.46	98.21	112.81	123.44
↘ 증가율	-14.50%	34.50%	9.77%	14.87%	9.42%
매출총이익	-1.99	4.29	12.45	17.97	22.80
↘ 마진	-2.99%	4.79%	12.68%	15.93%	18.47%
EBITDA	-8.87	6.23	4.34	8.47	12.38
↘ 마진	-13.34%	6.97%	4.42%	7.51%	10.03%
영업이익 (EBIT)	-10.71	4.28	2.15	6.26	10.11
↘ 마진	-16.10%	4.79%	2.19%	5.55%	8.19%
순이익	-13.18	-4.99	-0.64	3.11	6.51
↘ 마진	-19.82%	-5.57%	-0.65%	2.76%	5.27%
EPS	-20.38	-6.54	-0.91	3.91	7.91
↘ 증가율	250.77%	-67.91%	-86.13%	-530.73%	102.39%
잉여현금흐름 (FCF)	-14.31	-1.88	2.45	6.15	9.93
P/E	—	87.6x	—	52.6x	26.0x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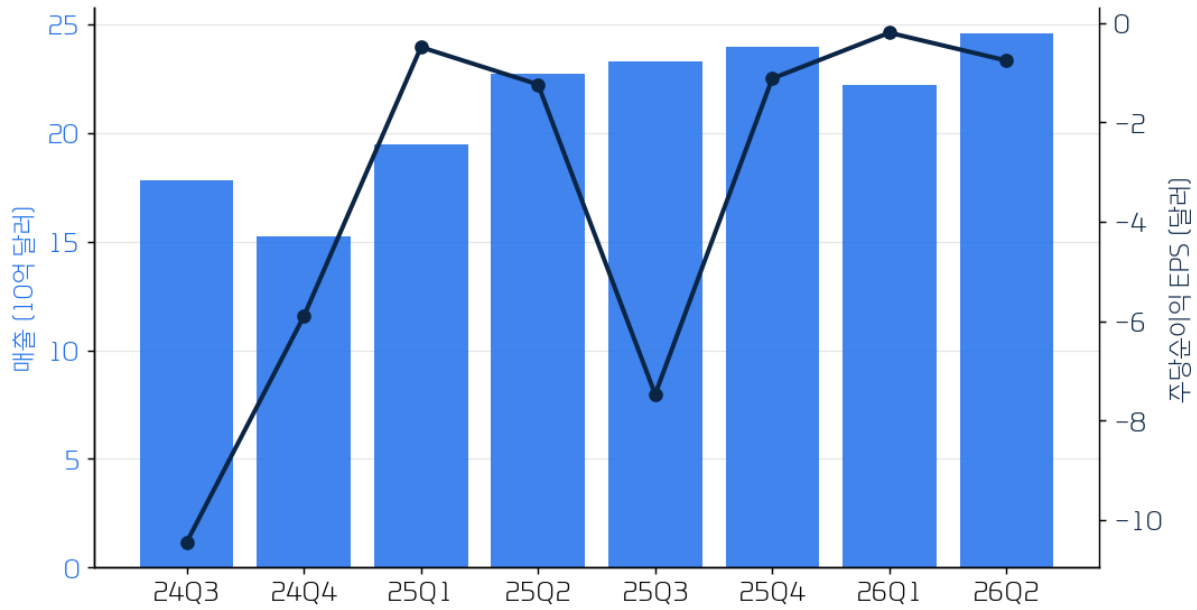
주: 증가율은 YoY, 단위는 십억 USD

참고 차트

BA 주가·12개월 선행 EPS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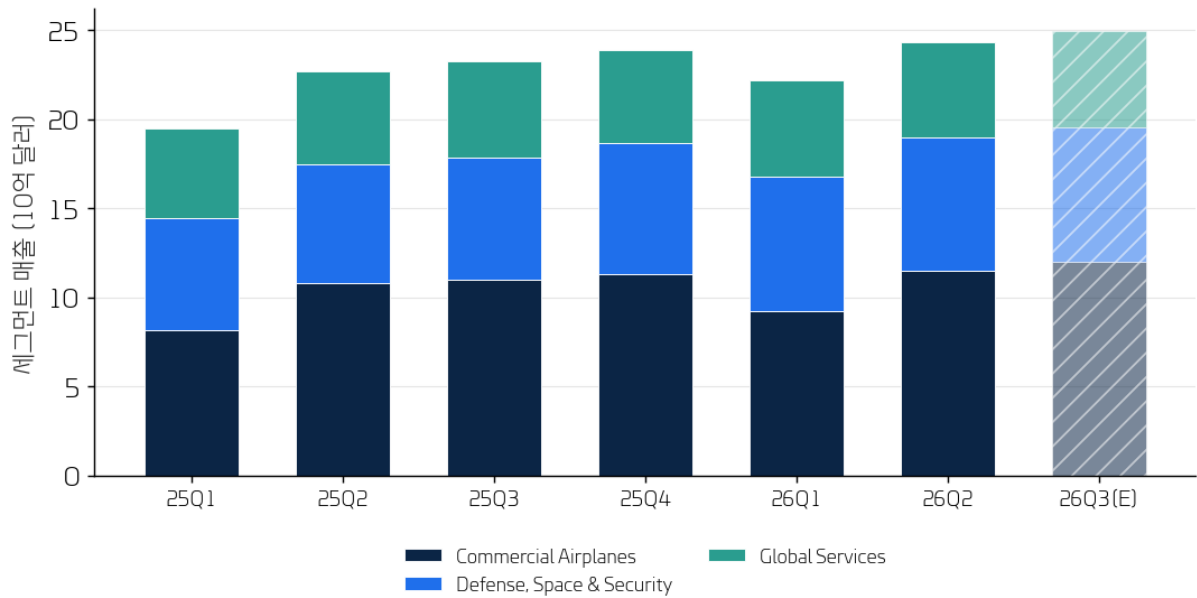


BA 분기 매출·주당순이익(EPS) 과거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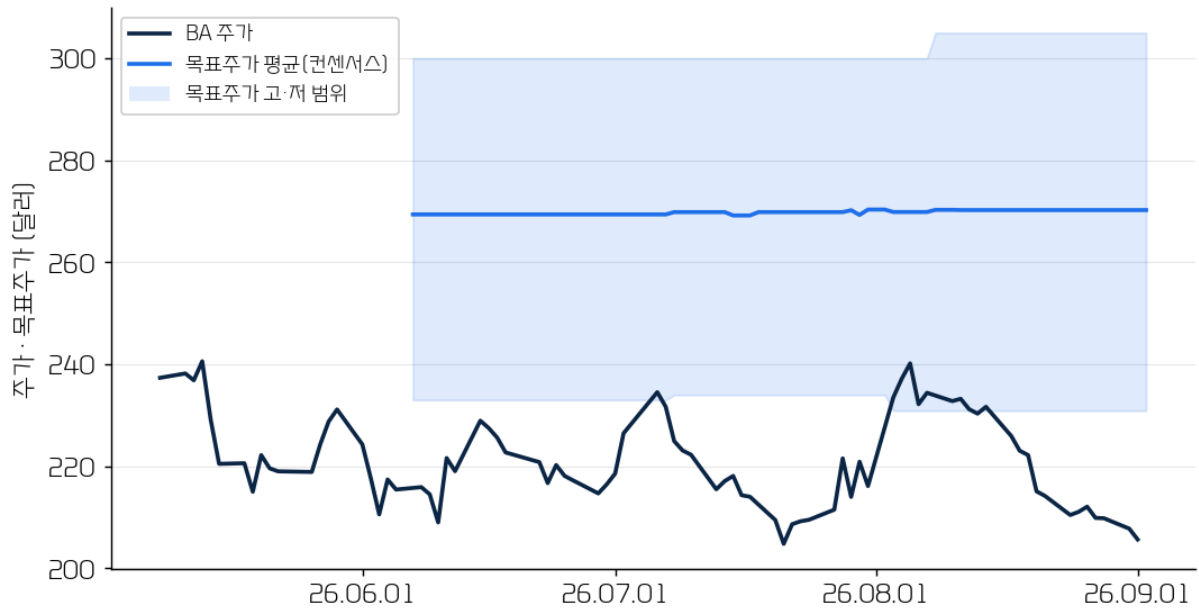
자료: 각사, LSEG, Factse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BA 세그먼트 매출 구성(사업부/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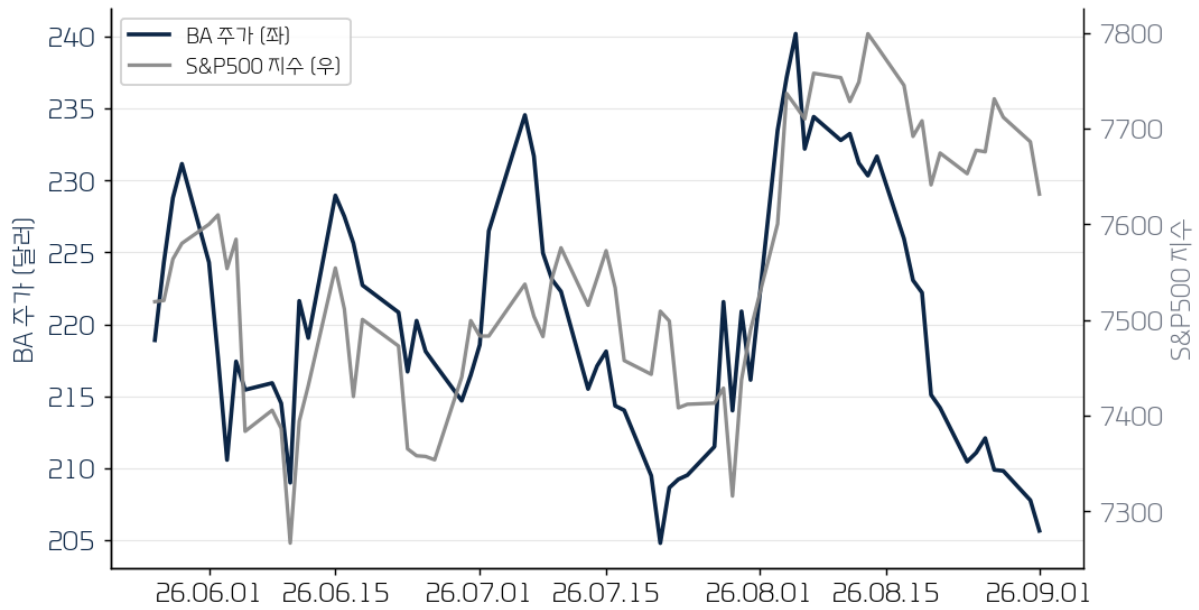
자료: 각사, LSEG, Factse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BA 애널리스트 목표주가 추이



자료: 각사, LSEG, Factse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BA 주가 vs S&P500 (최근 90 일)



자료: 각사, LSEG, Factse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생성되었으며,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AI 생성 특성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AI가 생성한 본 자료의 내용은 금융투자분석사가 최종 검수하였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
-